

2016 청소년활동가마당

애오

고구마와 사이다



청소년
 안녕하세요. 고구마와 사이다애오.
 활동가 여러분 2015년두 마니 힘드셨쥬..?
 이 명박근혜 7년, 마니마니 힘드러쓰니까..
 우리가치 고민 나누면서 할~링~해오♡

일 시 2016년 1월 12일 ~ 14일 (2박 3일) | 장 소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학교

주 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 주 관 2016 청소년활동가마당 기획단

2016 청소년활동가마당

애오

고구마와 사이다



일 시 2016년 1월 12일 ~ 14일 (2박 3일) | 장 소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학교

주 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 주 관 2016 청소년활동가마당 기획단

목차

3p 2016 청소년활동가마당 시간표

4p 1월 12일(첫째날) 프로그램

1. 자기소개: "안녕? 나는 00을 좋아해." 4p

2. 2015년, 나의 고구마/사이다는? 5p

3. 몸 풀기 맘 열기: 커튼 게임 5p

4. 활동나누기 이그나이트 6p

7p 1월 13일(둘째날) 프로그램

1. 노는 게 제일 좋아 7p

2.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 11p

3. D.I.Y. 사이다 토크토크

2016 청소년활동가마당 시간표 (1월 12일 ~ 1월 14일)

	시간	프로그램
1/12 (첫째 날)	14:00~15:00	모이기
	15:00~18:00	여는 시간 <2015년 나의 고구마는/사이다는?>
	18:00~19:30	저녁식사
	19:30~21:30	활동 나누기 이그나이트
1/13 (둘째 날)	9:30~12:00	노는게 제일 좋아 1 - 영화 상영 <식스티나인> - 보드게임/자유테이블
	12:00~13:00	점심식사
	13:00~14:40	노는게 제일 좋아 2 - 영화 상영 <엑셉티드> - 보드게임/자유테이블
	15:00~18:00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
	18:00~19:30	저녁식사
	19:30~21:00	D.I.Y. 사이다 토크토크
	21:00~21:30	D.I.Y. 사이다 레시피 공유와 뒷풀이
1/14 (셋째 날)	10:00~11:00	소감 나누기, 마무리

1월 12일(첫째날) 프로그램

시간	내용
15:00 ~ 15:40	자기 소개: "안녕? 나는 00을 좋아해."
15:40 ~ 17:00	<2015년, 나의 고구마/사이다는?>
17:00 ~ 18:00	몸 풀기 맘 열기: <커튼 게임>

1. 자기소개: "안녕? 나는 00을 좋아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단체의 사람들! 얼굴도 서먹서먹, 말 걸기도 낯설 낯설. 자기소개 게임하면서 이름도 익히고, 사람들의 특성도 한 조각 기억해보아요.

진행 방법

0. 인형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좋아하는/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 키워드 중에서 골라도 되고, 다른 키워드를 이야기해도 된다.
1. 처음 인형을 가진 사람이 "안녕? 나는 ~~를 좋아하는/싫어하는 00이야."라고 자기소개를 한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할 것 같은 사람에게 인형을 던지며 묻는다. "너는 어때니?"
2. 인형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를 좋아하는지/싫어하는지'를 답한다. 자신도 좋아/싫어한다면 "나도 그래"라고 답하고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아니라면 "아니야"라고 말하며 다시 공을 되돌려준다.
3. 공이 모두에게 돌아갈 때 까지 게임을 진행한다.
4. 인형을 받은 사람이 1~3의 방식을 반복한다.

<예시>

A: "안녕? 나는 윤서라고 하고, 굴을 좋아해." (굴을 좋아할 것 같은 B에게 인형을 던지며) "너는 어때니?"

B: (인형을 받고) "나도 그래. 나는 별다라고 해. 그리고 감자튀김을 싫어해." (감자튀김을 싫어할 것 같은 C에게 인형을 던지며) "너는 어때니?"

C: (인형을 받고) "나는 감자튀김 좋아해." (인형을 다시 B에게 던진다)

B: (다시 시작한다) "나는 별다라고 해. 그리고 웹툰을 좋아해." (웹툰을 좋아할 것 같은 D에게 인형을 던진다)

D: (인형을 받고) "나도 그래."

- 반복 -

2. 2015년, 나의 고구마/사이다는?

세월호와 교과서 국정화, 학습시간 줄이기 등 다사다난했던 2015년,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속을 팍 막하게 했던 '고구마' 같은 일과 그렇게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풀어주었던 '사이다' 같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포스트잇에 적고 이야기해 보아요!

예시

고구마 : 반인권적인 학교 규칙, 세월호와 관련된 악플, 활동과 관련해 학교와 가정의 탄압, 고질적인 단체의 예산 부족, 과도한 일로 수면 부족,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 사람들의 무관심, '인권 좀 안다는' 사람들의 끈대질, 신문을 가득 채운 정치인들의 막말, 모임에서 특하면 핑크를 내는 사람들 등등...!

사이다 : 나름 반응 좋았던 논평, 단체 공간 마련, 같이 활동하면서 친해진 사람들, 활동가로서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 성사, 꿀같은 휴가, 단체 회원 증가, 신문에 실리고 얻은 인기, 말빨로 끈대를 이긴 경험, 로또 당첨(?), 후원 모금 목표 달성, 열심히 싸워 지켰던 것들 등등...!

3. 몸 풀기 맘 열기: 커튼 게임

진행방법

1. 5명이 한 그룹을 만들어 담요로 만든 커튼 뒤에 선다.

2. 나머지 사람들이 앉아있는 관중석에서는 그 5명이 정체를 맞추어야 할 사람을 한 명 정한다.

3. 담요 뒤에서 5명은 그 한 명의 정체를 맞추기 위해 10개의 질문을 할 수 있다.

* 질문은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단답식 질문이어야 한다!

예시)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00을 좋아합니까? 채식을 하나요? 등등

- 질문을 들은 당사자는 관중석에게만 보이게 몸 동작으로 O/X를 표현하고, 관중석에서는 그 답을 담요 뒤의 5명이 들리게 큰 소리로 말해준다.
- 질문의 답을 듣고 추리해가면서 10개의 질문을 이어나간 후 5명은 그 지목된 한 명이 누구인지 맞춘다.

4. 활동나누기 이그나이트

청소년단체라도 다 같은 청소년단체가 아닙니다. 올 해 생겨난 단체에서부터 10년이다 되어 가는 단체까지, 다루는 문제의 종류나 거점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과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단체의 활동가들이 직접 소개하는 PPT를 보면서 청소년 운동 전체를 되돌아보아요. 다른 단체들의 활동들을 보면서 좋은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단체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파워포인트는 한 슬라이드 당 30초씩 해서 10슬라이드, 총 5분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슬라이드가 확확 넘어가니 단체의 주요 특징만 짧고 굵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지요?

청소년활동가마당에 참여하는 단체들

노원지역 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	국정교과서반대경남청소년네트워크
고양청소년국정화반대네트워크	대학입시거부로살을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녹색당
나다WOM	

1월 13일(둘째날) 프로그램

시간	내용
9:30~12:00	노는게 제일 좋아 1 - 영화 상영 <식스티나인> - 보드게임/자유테이블
12:00~13:00	점심식사
13:00~14:40	노는게 제일 좋아 2 - 영화 상영 <역셉티드> - 보드게임/자유테이블
15:00~18:00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
18:00~19:30	저녁식사
19:30~21:00	D.I.Y. 사이다 토크토크
21:00~21:30	D.I.Y. 사이다 레시피 공유와 뒷풀이

1. 노는 게 제일 좋아

지난 한 해도 수고한 우리! 잠시 쉬어볼까요? 두 개의 공간 중에서 한 곳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상영방, 또 한 곳은 각종 보드게임들이 있는 보드게임방입니다. 청소년활동/교육 활동을 주제로 한 영화도 보고, 보드게임을 하는 등 자유시간을 통해 잘 모르던 청소년활동가들과 친해지는 기회도 가져요.

#1. 영화상영방

오전 10시~12시 상영영화

식스티나인(69) : 113분 / 코미디, 드라마 / 일본

줄거리 : 나가사키의 사제보복고 3학년생인 켄은 청소를 땡땡이 치고 친구인 아다마, 이와세와 옥상에서 매스게임 연습을 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훑쳐보고 있다. 켄은 "17세 소녀들의 몸에 우중충한 체육복은 안 어울려. 좋아, 그녀들을 해방시키자!"며 영화와 연극, 로큰롤의 종합선물세트인 페스티벌을 개최하자고 한다. 켄과 친구들은 '바사라단'을 결성하고 7월19일 중업식날을 디데이로 학교 옥상을 봉쇄하는 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학교 건물에 내걸린 플래카드 '상상력이 권력을 쟁취한다!' 결국

바리케이드 봉쇄는 방송국과 신문사를 끌어들이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일대소동이 되어버리는데...

오후 1시~ 2시 40분 상영영화

엑셉티드(Accepted) : 90분 / 코미디 / 미국

줄거리 : 지원한 대학들에서 모두 낙방소식을 받은 주인공이 가짜로 대학을 만들어 입학생 행세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대학을 설립한 B와 친구들은 학생이 곧 교수, 원하는 학과 개설'이라는 황당한 룰을 설정해 이 가짜 대학을 유지해 가지만 하문 대학의 총장의 욕심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2. 보드게임방

보드게임방에는 부루마블, 시타델, 루미큐브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에서 제작한 WE CAN CHANGE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보드게임이 생소하다면 설명법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기획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한 쪽에는 "멀티탭과 시간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분들을 위한 자유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드게임의 룰은 게임 내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기획단에게!

2.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

시간	내용	
15:00~16:30	사례발제	"학생들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 짱짱(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례 발제: 가만히 있오라 - 김한률(청년좌파)
16:30~16:50	질의응답	
16:50~17:00	쉬는시간	
17:00~17:20	발제	청소년 표현의 자유, 객기와 침묵 사이 - 윤서(청소년활동가상청 '활기')
17:20~18:00	플로어토론	

"학생들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 짱짱(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선(학교는 안 가지만 적은 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에게 앞머리 4cm 윗머리 3cm 옆, 뒷머리 1cm라는 짧은 머리를 강요했고, 입학식 때 절대 교칙에 반하지 않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 품행이 올바라야 한다든지 이딴 구린 선서를 하며 그 내용의 서약서를 주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후에는 그것을 근거로 두발규제를 정당화하더라고요. "서명하지 말았어야지"하며.

사실 초등학교만 해도, 제가 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나의 '인권'이 침해돼 불편했다거나 힘들었다거나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가서 두발규제를 겪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서 '인권'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불평을 늘어놓듯이 얘기해본 적은 있습니다. 다들 "어쩔 수 없는 것. 대학 가면 머리 신경 안 쓰니까 그 때 가서 누려."란 무책임한 말 뿐이었습니다.

2학년 때 생활지도부장(이하 부장)이 바뀌면서 단속이 강해지고 생활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헌법 등, 근거로 들 수 있는 모든 법과 인권을 가지고 나름의 불복종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외교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징계를 당해서 외교를 못 가게 하는 걸로 계속해서 협박하는 등,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사는 게 가혹하단 것을 느끼고 2학년 말에는 도망치듯, 다른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가서도 뭔가 난 더 이상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잠깐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부친과의 합의로 3학년 때 다시 다니던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학 처리 과정에서 마침 부장이 있었고 그가 또 서약서를 들이밀고 '문제될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 약속하라 하더군요. 아니면 전학 안 받아주겠다고. 그냥 서약서 효력이 없음을 알고 전학처리를 하고 서명운동을 할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을 세우는 동안 아는 활동가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얘기를 했다가 싸워서 기가 빨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야 멍청하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서명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뿌릴 것을 부장한테 하려 말으려 갔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었고 전 또 그 유인물이 3학년 생활지도부장(이하 소교사)한테 보내져 엄청 깨졌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운동에 관심있고 하려 하는 것을 보고 (지 안에서) 잘 설명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통수친다.", "당근과 채찍을 주면 난 당근만 받아먹는다."란 말을 듣고 "내가 교직을 때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너 지금 아구창을 갈고 싶다(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말까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기가 빨릴 대로 빨리고 학업이나 챙겨야 할

활동도 있어 그만뒀었습니다. 정말이지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학내운동을 벌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사실 학내운동 계획 없이 졸업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체념하고 무기력한 것을 확인했었고, 스스로도 깨지기만 할 터이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외중에 밀루가 요즘 것들을 뿌리며 하룻길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것만은 아깝다, 싶어 학교 두발규제와 그와 엮여 이루어지는 체벌에 대해서 비판하는 유인물도 배포하자고 의견을 냈고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만큼은 주로 호의적이었고 소문은 많이 났지만 그게 학내 운동 조직으로 이어진다거나하진 않아서 아쉽네요.

사전에 그 캠페인 공지를 카페에 올렸었는데, 미리 발각돼서 생활지도부 교사(이하 ㅎ교사)가 저에게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자기 옛 제자들이 프리허그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밀려서 졸업 후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며 졸업 후로 미루길 제안했었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이하 선동)으로 선도위가 개최될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경찰 정보과랑 연락도 했다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연행될 수도 있다고 저를 위축시키려고 했습니다. "학생인권은 좋은데, 교권과 학습권은 없니?"라고 해서 "아니 학교 밖이고 수업 다 끝난 시간인데요?"라고 말했더니 "학교지도하잖아. 교문 안, 밖에서 건널목에서 호각도 불고" 이런 되도 않는 얘기도 했어요. 사실 좀 무서웠지만 굴하지 않고 전 다음날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 캠페인을 진행한 날 다음날에 터졌죠.

다음날 학교에서 아침에 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ㅎ교사)가 교실로 와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더니 저보고 자길 따라오래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는 1, 2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같이 가고 있었고 그 유인물을 들고 "선생님 이거 안 되는 거죠?"라고 했습니다. 부장 자리에 앉히고 어디 다녀오더니 1)8시 20 이후 휴대폰 사용 2)두발규제 위반 3)선동 4)무단 지각, 결석이 문제가 된다면 선도위 회부를 경고하더군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후배들도 문제있다고 생각하잖아"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자기네 반 학생들까지 부르고 저렇게 말하게 시키다니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휴대폰 사용했던 학생들도 많았고 두발규제 위반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1), 2)는 뭐냐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니까 "개네는 따로 주의주면 되는 문제고."라고 했습니다. 어이 x. 그렇게 1교시를 날렸습니다.

(ㅎ교사)가 부장이 출장갔다고 하고 교실 가서 수업 듣는데 점심 먹고 또 전 3학년 교무실로 불려가고 저는 (s교사)에게 맡겨지듯, (ㅎ교사)가 (s교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내라고 하더군요. 전 사실확인서와 펜을 받고 그 이후로 오후 내내 교무실에서 사실확인서를 몇 번이나 다시 써오라 해서 다시 쓰고, 그 과정에서 계속 언성 높이고 말 끝을 "-이씨"로 끝내며 정말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7교시가 끝날 때까지 많은 학생들이 하교할 때 즈음에도 교무실에 남아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사실확인서가 드디어 통과됐고 같이 한 사람(밀루) 신원 파악한다고 나이랑 성별을 달라고 하더군요.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 "필요하다면 같이 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 주겠다."라고 했더니 "학교는 피해자고 너네는 가해자야, 가해자 인권존중 하자는 거야 뭐야? 나이랑 성별로 뭘 할 수 있겠는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성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야" 이런 따위의 말을 들었고 3학년 생활지도부 교사가 계속해서 월월월!!!하면서 화내고 있고 저도 작게나마 말하고 있는데 담임교사가 절 뒤로 빼서 전화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밀루에게 전화해서 허락받고 정보를 적고 내니까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 불리한 것만 빠져나가려하냐고 왜"라고 해서 "내 상식으로는 허락받고 적어야 한다."라고 했더니 "이런 것 판단도 안 되는 게, 인권 관련해서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심히 자살충동이 들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 담임교사와 부장과의 상담이 이어졌는데, 담임교사와의 상담은 몰라도 부장과의 상담은 정말 서로 다른 말만 하고 부장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주입하려고만 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엔 아빠가 학교에 와서 부장, 담임교사도 함께 상담을 했었는데, 진짜 전의 여느 상담과 다르지 않고 아빠는 별 말 없더군요.

결국엔 선도위가 열리고 징계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여러 신문사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당일엔 긴급 학생회가 열리더군요. 내용은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과 "선동당하지 말아라"라는 으뜸장이었습니다. "만약, 함께하거나 동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오갔더군요. "선동당하지 말아라"도 선동일 터인데, 이중 잣대라곤 생각하진 못하나 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나서 기사들을 확인하는데 어떤 한 기사에서 학교가 "류군은 욕구불만이 있어 우선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더군요. 정말이지 끝까지. 이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상 징계철회로 흐지부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현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맞서는 일은 쉽게 억압받을 것이라거나 많은 학생들, 주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연하지 못하고 강압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사회로부터 그런 표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럴 수 있는 기회도, 경험도 없고 안내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가 학내 대응을 하고 싶지만 두려웠던 이유,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유로도 꼽을 수 있겠죠.

아직도 많은 학교의 교칙에는 징계기준표에 "학생들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

생"을 뒤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도 아예 대놓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 사회가 갖춰야 할 제 1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 사회라면 시민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특히 학생에게 그걸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위 사례에 대해서 요청받은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다른 어떤 지부(춘천, 밀양)에는 청소년 비율이 높지만 제가 경험한 단체 사람들(광주, 수도권, 부산 등)에는 비청소년 비율이 많이 높고, 저보다 어린 사람은 없고 저 또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한 손 안에 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 회의를 하거나 팀회의를 할 때, 많은 비청소년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인권 친화적이지 않고 위의 사례를 서술했듯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인권 단체라 단체 밖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문화와 권력관계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활동을 오래해서 경험이 많고 그래서 아는 게 많은 한 상황에서 권력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의도하거나 권력관계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단체 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 기묘찌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례 발제: 가만히 있으라.

- 김한률(청년좌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기를 지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불합리한 억압과 통제에 대한 기억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유독 청소년에게만 강요되는 어떠한 '미덕'에 대한 기억들. '나이'를 뿌리로 삼고 있는 그 '미덕'들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을 결박한다. 마치 죄수의 발목에 달려있는 무거운 족쇄처럼, 그것들은 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한다.

알겠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이후, 대학생 용혜인씨가 제안한 '가만히 있으라'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아마 그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슬로건에 공감했다. 세월호라는 커다란 사건이 있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 사회에 숨은 듯 자리잡고 있던 '가만히 있으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소리치자고, 나가서 싸우자고 말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마주한 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은 비단 비청소년들뿐만은 아니었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언론은 연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을 '영웅' 취급했다. 매일 올라오는 기사들에는 어김없이 '기특한' 혹은 '대견한' 따위의 수식어가 붙어있었다. 언론은 하루걸러 하루 꼴로 '영웅적인' 청소년을 만들어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나의 '나이'에 관심을 집중했다. 내 나이가 단원과 희생자들과 동년배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떡밥이었다. 그들은 어김없이 나를 '대견한' 청소년으로 만들었고, "공부할 나이에 이런 곳에 있어도 돼요?" 따위의 질문을 던지곤 했다. 나는 그곳에서 온전히 '김한률'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열여덟', '생면부지의 단원과 친구들을 위해 거리로 나선 고2 학생' 이어야만 했다.

그 당시 나에게 이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그들이 내 나이를 조명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다. 다만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가만히 있으라' 속의 '가만히 있으라'였다. 내가 거리로 나선 것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청소년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지금이 가장 중요할 시기이니 지금은 공부를 해라.”

나는 열여덟이었고,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나이였다.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시기.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처박고 바쁘게 펜을 놀려야 할 시기. 언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하소연을 들은 어떤 비청소년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더라.

“그래, 네 맘 다 알겠는데 이제 적당히 하고 공부 좀 해.”

그러니까, 거리에서 나는 그저 '공부를 할 나이'의 안타까운, 혹은 대견한 '열여덟'이었을 뿐이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인간은 존재했다. 내가 그랬고 다른 청소년들이 그랬다. 그들은 함께 거리로 나온 다른 시민들과는 확실히 다른 취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시민이 아니었던 거다. 우리는 단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청소년이었을 뿐이었다. 5월 1일, 안국역 앞에서 철야투쟁을 하던 내게 지나가던 누군가가 던졌던 이 말처럼.

“고삐리가 뭘 안다고 설쳐. 들어가서 공부나 하지.”

출석요구서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가 있는 지 정확히 열흘 째 되는 날이었다. 하고 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엄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엄마에게 직접 으름장을 놔왔던 것 같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서야 안 사실인데, 그 날 내가 학교한 후에 경찰이 학교를 찾아갔고, 학교에서 나를 찾을 수 없자 교무실에 쳐들어와 자신들이 경찰임을 밝히고 내 번호도 아닌 부모님 번호를 받아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부모님 번호로 “집으로 찾아가겠으니 집에서 기다리시라”며 으름장을 놔고.

경찰이 나를 직접 찾아온 이유는 뻔하게도 '1차 민중총궐기' 때문이었다. 오후 6시경 경찰이 찾아오자, 나는 문 걸쇠를 걸고 그들을 맞이했다. 나는 경찰의 무례한 조사방식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였고, 출석 요구서를 요구하고 경찰을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뺨이 조금 안되게 문을 연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요구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경찰은 내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대뜸 반말로 신상정보를 캐묻기 시작했다.

“학생이 한름이야? 97년생? OO고등학교?”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내가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게 대체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항의하자 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우리 경찰은 누구를 조사할 때 절차를 어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조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조사임에도 그는 매우 당당했다. 여든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될 만큼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재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너한테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어.”

“니가 뭘 모르나본데, 출석 요구서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집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내가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았는지, 내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를 불러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그러던 차에 아빠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 경찰은 아빠에게 '나의 채증사진이 있다고 말했다고, 아빠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경찰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2016년이 된 지금까지도 출석 요구서는 오지 않고 있다.

경찰의 가정 방문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그들은 내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기에 학교와 집으로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했을 것이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청소년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모를 겁박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청소년'이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게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거리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언제나 거리에 서 있는 시민들과 '다른'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그곳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에, 그들은 목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에.

청소년 표현의 자유, 객기와 침묵 사이

- 윤서(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2015년은 2008년 광우병 집회 이후 청소년들의 활동이 가장 주목받은 해가 아닌가 싶다. 세월호,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메이저 이슈가 되면서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했다. 때로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때로는 피켓을 들고 거리와 광장을 오가는 청소년의 모습은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누군가는 페이스북 공유버튼을 누르며 연신 '미안하다' 사과했고, 누군가는 행진에 난입해 현수막에 발길질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익숙한 광경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운동이란 존재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진 참가자들을 억압하는 일은 비청소년 중심의 활동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은가. 하지만 청소년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억압과도 싸워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각각 자녀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귀속되었기에.

수많은 비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다 징계를 당하고, 추운 날 피켓을 들고 있는 등 '고생'을 하는 것을 미안해한다. '이런 사회'를 만든 것이,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되게 해 내 자식 같은 당신들의 삶을 가혹하게 한 것이 그렇게나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활동할 때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이명박도, 박근혜도, '어린놈들이 뭘 안다고 설쳐'라고 말하는 몰상식한 어른도 아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와 교사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주체성이 차차히 짓밟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집회 현장에서 연행을 당해도 행위 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의미일까.

표현의 자유란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말할 자유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권리이다.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알베 논란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혐오할 수 있는 권리'라는 모순적인 권리의 논리로서 쓰이기도 한다. 그만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이 개념은 언제나 논란거리 취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잠시 미뤄두고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 정의에만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해봐도, 청소년과 어색한 조합의 단어임은 분명하다.

비청소년 중심의 활동에 비해 청소년 활동은 유난히 주체들의 대견함과 처절함이 강조된다. 때로는 어린 사람들의 발랄함, '가만히 있지 않는' 객기를 바라기도 한다.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연결점이라고 없는 말들이지만, 사회는 이렇게 모순되는 모습을 청소년에게 기대하고 있다. 2015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청소년 활동가로서 세월호와 역사교과서 국

정화 반대 운동을 보며 느끼는 거리감은 이 지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두 활동이 2015년의 메이저이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레임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음으로써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

세월호는 '친구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자 하는 청소년'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청소년'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이는 운동이라기 보단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윤리적인 활동으로 재편집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윤리적 마음가짐을 그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혈기로서, 운동의 형태를 빌어 분출하니 사회가 기대하는 활동하는 청소년, 그 모습에 철저히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세월호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았던 문제지점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청소년 집회 현장에만 존재하는 수많은 질서유지인과 청소년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그대로 순수하고 윤리적인 청소년의 모습을 보이는 형태의 운동은 학생에게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교육현장에서 세월호 리본조차 달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 교사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순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조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아래 사진은 2015년 10월 31일 '국정화 반대 청소년 거리 행동'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학생들이 "선생님,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트모양 카드섹션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아래의 사진은 각각 1999년과 2008년 프랑스 민주독립교생연합(FIDL)에서 교육시설 개선과 교사 충원 등을 요구하며 동맹파업을 진행한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고등교육개혁을 요구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총파업에 들어간 사진이다. 물론 한국의 청소년 운동이 반드시 프랑스와 같은 역동적인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프랑스의 교육운동이 학생-교사의 동맹 파업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학생의 교사에 대해 지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등의 차이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진 2. <국정화 반대 청소년 거리행동>의 교사지지 퍼포먼스(2015년. 출처 한겨레)



사진 3. 프랑스 민주독립교생연합 동맹파업 (1999년. 출처 조선일보)

사진 4. 7.16 프랑스 고등학생/교사 동맹 총파업 (2008년. 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의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간극은 이 지점에서 부터 벌어진다. 청소년이 '어른'들이 반발하지 않을 정도의, 그들이 허락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극명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실 나는 때때로 사진 1.과 같이 마음 편히 교사를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부럽다고 생각한다. 어린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지금의 사회에서는 기대하는 모습에 부응하는 운동의 방식은 분명 더 주목받기 유리하고,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잠깐의 시기를 억누르는 것은 이런 방식이 결국 더욱 견고한 프레임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그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수많은 소수자들은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이 억압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객기와 침묵 사이, 그 모순

적인 사이길에 올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서, 억압의 논리를 깨야 이 악순환을 깰 수 있다.

3. D.I.Y. 사이다 토크투크

첫째 날 여는 시간에 <2015년 나의 고구마/사이다는?>에서 각자의 고구마가 어떤 지 살펴보았던 만큼 그런 '고구마 백만 개 먹은 듯한 답답함'을 뺑 뚫어줄 수 있는 사이다의 레시피를 만들어보아요. 진지하고 완벽한 '사이다'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조금은 허무맹랑해도 우리의 속을 뺑 뚫어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자유롭게 조합해 요!

시 간	구 분	내 용
19:30~19:40 (10분)	조 나누기	첫째 날 여는 시간 <2015년 나의 고구마 /사이다는?> 내용을 다시 살펴보며 공통된 '고구마'를 공유하는 활동가 그룹을 나눠 조를 만든다.
19:40~20:10 (30분)	조 이름 정하기	서로의 '고구마'는 어떤 의미였고, 어떤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조의 이름을 정해 색지에 간판을 만든다. 조 별로 이름/이름의 의미/간판을 공유한다.
20:10~21:00 (50분)	D.I.Y.사이다 레시피 만들기	전지에 우리 조의 고구마에 대해서 짤막하게 적는다. 막힌 속을 뺑 뚫어줄 사이다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사이다의 이름과 함께 레시피를 작성한다. **허무맹랑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현실에 기반할 필요 없습니다!